

2017년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안내 및 동의서

학부모님께

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특히 만 15세부터 결핵발생이 크게 증가합니다.

이에 교육부(교육청)와 보건복지부(질병관리본부)는 고등학생의 결핵발생을 예방하고 학교 내 전파를 방지하고자, 2017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<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>을 실시합니다.

‘잠복결핵감염’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으로 발병하기 전(前) 단계로, 전염성이 없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다만, 건강관리에 소홀하여 면역력이 약화될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, 치료를 통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90%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잠복결핵감염 검진은 IGRA(Interferon-gamma releasing assay) 검사로 실시됩니다. IGRA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며, 간편하고 이상반응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검사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보건소와 검진기관(대한결핵협회)에서 자녀의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. 결과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관리 목적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.

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.

자녀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기 원하는 경우 <뒷면>의 ‘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결과 정보 이용 동의서’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7년 3월 16일

호남제일고등학교장

